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9. 8. (월)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 40만 톤 미만·품질 양호 예상

- 전년 동기 관측량 대비 3.0% 감소·착과량 제주시 감소, 서귀포시 소폭 증가 -
- 과실 비대기, 강수량 적고 평균기온·일조 등 기상환경 좋아 품질 양호 -

- 올해 제주 감귤 생산예상량은 관측조사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%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지만, 기상 여건이 좋아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전망이다.
-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(위원장 김철수)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2025년 노지감귤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.
 - 올해 제주지역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 5,700톤 내외(37만 9,700~41만 1,700톤)로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 8,300톤보다 1만 2,600톤(3%)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. 다만 지난해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열과 발생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37만 톤에 그쳤다.
 - 생산예상량은 현재 재배면적 1만 3,994ha 중 성목이식, 품종갱신, 고접 갱신, 간벌 등 비생산 면적을 제외한 1만 3,493ha를 기준으로 산출했다.
- 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800개로 지난해(878개)보다 78개, 최근 5년 평균(832개)보다 32개 적었다.
- 제주시는 512개로 전·평년 대비 각각 532개, 268개 적었고,

서귀포시는 861개로 전년보다 71개 많았지만, 평년보다는 49개 적었다. 지역과 나무별 착과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열매 크기(횡경)는 제주시가 45.6mm로 전년보다 2.4mm, 평년보다 1.6mm 컸다. 서귀포시는 43.6mm로 전년보다 0.1mm 컸으나, 평년보다는 0.6mm 작았다.

□ 품질조사 결과 당도는 7.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.1브릭스, 5년 평균에 비해 0.5브릭스 높았으며 산 함량은 2.91%로 전년에 비해 0.19%p, 5년 평균보다 0.43%p 낮았다.

○ 이는 과실 비대기에 강수량이 적고 평균기온은 높았으며 일조 조건이 양호해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.

(평균기온) 7월 전·평년 대비 각각 0.5℃ ↑, 2.4℃ ↑, 8월 전년 대비 1.0℃ ↓, 평년 대비 1.3℃ ↑

(강수량) 6월 전·평년 대비 각각 61.5mm ↓, 61.5mm ↓, 7월 전·평년 대비 각각 103.0mm ↓, 157.9mm ↓, 8월 전년 대비 0.4mm ↓, 평년 대비 86.2mm ↓

(일조시간) 6월 전·평년 대비 19.9시간 ↑, 8.7시간 ↑, 7월 전·평년 대비 100.6시간 ↑, 82.4시간 ↑, 8월 전·평년 대비 44.1시간 ↓, 1.6시간 ↓

□ 농업기술원은 11월 중 3차 관측조사를 통해 품질과 결점과율 등을 확인한 뒤, 최종 생산예상량을 행정 부서에 전달할 방침이다.

□ 김동현 농업관측팀장은 “올해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,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기상 변수에 따른 생육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ی겠다”고 말했다.